심령사진: 과학의 눈으로 본 혼령

주형일*

〈차 례〉

1. 들어가며
2. 사진기술과 심령사진
3. 미신과 과학 사이의 심령사진
 1) 종교의 약화와 과학의 발달
 2) 사진에 대한 과학적 판타지
4. 현대의 심령사진: 한국의 사례
5. 결론을 대신해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나는 사진의 기술적 특성이 심령사진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심령사진의 등장 과정에서 종교적, 과학적 환경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심령사진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의 힘이 약화되자 인간은 새로운 앎의 수단인 과학을 이용해 사후세계를 알고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과학적 기술 발전의 산물인 사진은 가시적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쉽게도 명백하게 사후세계에 접근하는 문을 여는 수단으로

*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해됐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영매, 퇴마사, 무당 등의 확신에 찬 목격담과 각종 측정기구와 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과학적 담론 사이에서 심령사진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명확한 기록수단인 사진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화답하면서 계속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주제어: 심령사진, 심령술, 염사, 옵토그래피, 이중인화

1. 들어가며

손탁[1]은 "모든 사진은 메멘토 모리"라고 했다. 사진에 기록된 것은 존재했던 것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진은 존재했던 것의 부재를 표시한다. 사진에 기록된 것은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진은 결국 대상의 부재 혹은 소멸에 대한 기호로서 궁극적으로 죽음을 내포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옛 사진을 보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결정된 나의 죽음을 예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진이 죽음을 예감시키거나 재현함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정서적 충격을 주는 이유는 죽음이 인간의 존재와 관계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모든 활동은 죽음이란 궁극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서 조직된다. 존

1) Sontag, S. *On Photograph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7, p. 15.

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죽음은 불가지의 영역이다.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원초적 공포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낸다.

이 알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종교와 과학이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종교는 믿음과 증언을 통해, 과학은 관찰과 증명을 통해 죽음이란 사건에 접근하고자 한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종속시키거나 서로에게 영감을 주거나 근거자료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겹쳐서 운영돼 왔다. 흥미롭게도 죽음과 관련해서 사진은 이 두 영역이 겹치는 지점에서 움직인다. 죽음과 관련해 종교와 과학 사이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중첩지대에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보하는 담론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진이 있다. 바로 귀신이나 천사, 요정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재현하는 심령사진이다.

심령사진은 사진의 발명 초기부터 등장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진 장르이다. 하지만 심령사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심령사진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심령사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심령사진의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 한국에서 심령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2. 사진기술과 심령사진

귀신, 저승사자, 천사, 악마, 요정, 신령, 도깨비 등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믿음 중의 하나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지각해 왔다. 전설이나 신화, 민담 혹은 구체적

목격담의 형태로 묘사돼 온 초자연적 존재들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이나 후각, 청각 등 온 몸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다. 이런 감각들 중 특히 시각을 통한 지각이 이들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초자연적 존재들은 예전부터 우선적으로 그림을 통해 재현돼 왔다. 초자연적 존재들은 시대, 사회, 문화에 따라 제한되는 특수한 집단적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재현된 이들의 모습은 시대, 사회, 문화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하비[2]에 따르면, 초자연적 존재들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했다. 우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격담을 그림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초자연적 존재가 실재한다는 시각적 증거로서 그림이 이용됐다. 또한 그림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대중에 대한 교육의 기능을 했다. 즉, 대중에게 죽음을 준비하고 원죄를 깨닫고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기능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은 오락의 기능을 했다.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환등기를 이용해 귀신이나 악마 같은 형상을 투사하는 영상 쇼(예를 들어 "phantasmagoria")는 일종의 공포영화처럼 재미있는 볼거리로 기능했다.

중세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재현된 유령의 형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3] 첫째,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가 있다. 이 경우, 산 사람과 유령 사이의 시각적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유령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유령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속이 비치는

---

2) Harvey, J. *Photography and Spirit.* London: Reaktion Books, 2007, pp. 24-69.

3) Schmitt, J. C. *Ghosts in the Middle Ages: The Living and the Dead in Medieval Society*,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 195-219.

장막 같은 것으로 싸인 형태가 있다. 이때 유령은 사람의 몸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몸을 감싼 것이 일상적인 의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쉽게 구분된다. 셋째, 죽은 시체의 형태이다. 이 경우, 유령은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시체의 형태를 하고 나타난다. 넷째, 동물의 형태이다. 유령은 새, 말, 개, 뱀 등과 같은 동물의 형상을 띨 수 있다. 다섯째, 물건의 형태이다. 건초더미, 가시나무, 모닥불 같은 형태가 대표적이다.

유령이 이런 구체적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유령을 재현하는 그림(특히 목판화)의 특성상 유령이 명확하고 구분되는 형체를 가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유령을 재현하는 매체의 기술적, 물리적 특성이 유령의 재현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사람들이 유령의 모습을 상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4)]

19세기 중반 이후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한 심령사진의 경우에도 사진이 가진 기술적 특성이 사진의 재현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심령사진의 등장은 이중인화라는 사진기술 만의 독특한 현상에서 비롯됐다. 최초의 심령사진은 미국 뉴저지의 상업사진가였던 캠벨(W. Campbell)이 1860년 제작했다. 그는 미국사진협회 20회 정기모임에서 소년의 영혼처럼 보이는 형상이 촬영된 사진을 발표했다. 테스트를 위해 의자를 촬영한 사진에 희미한 소년의 형상이 기록된 것이다. 그런 형상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이중인화현상으로 설명된다. 당시는 유리판에 화학약품을 바른 후 인화를 했으며 경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한 유리판을 닦아서 재사용하곤 했다. 따라서 이전의 영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유리판을 사용할 경우 이중인화에 의해 여러 형상이 겹쳐 나타날 수 있었다. 당시 사진가

---

4) Harvey, J. "The Photographic Medium: Representation, Reconstitution, Consciousness, and Collaboration in Early-Twentieth-Century Spiritualism", *Technoetic Arts: A Journal of Speculative Research,* 2(2), 2004, pp. 109-123.

들은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었고 재미를 위해서나 혹은 레일랜더(Rejlander)같은 사진가처럼 예술적 목적으로 이중인화사진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캠벨은 자신이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사진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5)]

캠벨은 비슷한 류의 심령사진을 다시 제작하지 못했지만 보스턴의 사진가 멈러(W. H. Mumler)는 전문적으로 심령사진을 제작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멈러는 원래 보석상에서 일하던 조각사였는데 취미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1861년 3월의 어느 날 멈러는 친구의 사진관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의자에 희미한 소녀의 형상이 기록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는 그 사진이 이중인화의 결과일 것이라 했고 멈러는 흥미로운 현상이라 생각했다. 얼마 후 뉴욕의 한 신문이 이 사진을 심령사진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멈러는 일약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심령사진을 얻고자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곧 심령사진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6)]



〈그림 1〉 매리 토드 링컨의 초상. 1865년. 멈러.

멈러에 의해 유명해진 초기의 심령사진은 명함판 크기의 초상사진 형태였다. 당시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수집하던 명함판 초상사진이 유행이었다. 심령사진은 바로 이 초상사진의 인물 주위에 별도의 흐릿한 형상('extra')이 나타나 있는 방식

5) Hannavy, J. *Encyclopedia of Nineteenth-Century Photography*. New York: Routledge, 2008, p. 1332.

6) Mumler, W. H. *The Personal Experiences of William H. Mumler in Spirit-Photography*. Boston: Colby and Rich, 1875.

으로 제작됐다. 멈러가 제작한 가장 유명한 심령사진인 링컨 부인의 초상사진은 그 특성을 잘 보여준다. 1865년 촬영된 링컨 대통령 부인(M. T. Loncoln)의 초상사진을 보면, 부인 뒤로 살해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흐릿한 형태로 재현돼 있다(그림 1).

멈러가 자신의 사진관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의뢰인들이 그를 찾아왔다. 심령사진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속임수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멈러의 사진 제작 과정과 장비를 통제하고 조사했지만 조작의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중 몇몇은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심령사진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멈러를 조작된 사진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하는 사기꾼으로 간주했다. 그의 심령사진에 나타난 '엑스트라' 형상들 중 일부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1869년 멈러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지지자들의 변론 덕분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872년 3월 4일 런던의 사진관에서 영국 최초의 심령사진이 제작됐다. 사진가인 허드슨(F. A. Hudson)이 심령술사인 구피(S. Guppy)와 영매인 그의 부인(Guppy-Volckman)의 초상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했다. 부인을 배경막 뒤에 서있게 하고 구피의 초상사진을 찍었는데 하얀 베일을 뒤집어쓴 형체가 사진에 나타난 것이다. 이 사진은 권위 있는 사진 잡지(*The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7]

멈러는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개인적인 작업을 통해 심령사진을 제작했지만 허드슨의 경우는 전문 사진가로서 심령술사와 영매의 도움을 바탕으로 심령사진을 제작했으며 그 결과물은 사진 전문잡지를 통해 소개됐다. 따라서 멈러의 심령사진이 쉽게 사기로 치부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허드슨의 심령사진에 대한 반응은 좀 더

7) Jay, B. *Cyanide & Spirits/ An Inside-Out View of Early Photography*, Munich: Nazraeli Press, 1991, pp. 21-25.

신중했다. 심령사진은 이제 심령술사와 영매는 물론 과학자들까지 참여하는 조사와 논쟁의 대상이 됐으며 심령사진의 제작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사진가이자 염력(psychokinesis) 연구가인 뷔게(Buguet)가 1873년부터 심령사진을 제작해 유명해졌다. 그의 심령사진은 인물 주위로 흰 베일 뒤집어쓰고 머리만 보이는 형상이 재현되는 형태로 제작됐다. 그는 1875년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사진을 조작했다고 자백함으로써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후 많은 사진가들이 사기혐의로 기소되고 실제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심령사진의 인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1930년대까지 수많은 심령사진들이 제작됐다.

심령사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초기의 심령사진은 멈러, 허드슨, 뷔게의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흐릿한 인물의 형상, 흰색의 베일이나 천을 둘러쓴 형상 등을 재현하는 형태였다. 이 흐릿한 형상들은 인물의 크기와 동일한 비율로 몸 전체가 다 재현되면서 인물의 뒤나 옆의 공간을 차지한다. 마치 인물과 함께 초상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다.

1880년대 후반부터는 심령사진의 형태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전까지 인물의 뒤나 옆에 위치하던 '엑스트라' 형상이 인물과 카메라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재현됐다. 흐릿하던 형상의 모습도 훨씬 뚜렷해져서 실제 인물과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재현된 것이다. 그리고 형상의 크기도 더 이상 인물의 크기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지 않게 됐다. 또한 몸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만 재현되는 경우도 많았다. 초기 심령사진이 '엑스트라' 형상을 자연스럽게 포착된 유령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졌다면 18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심령사진은 그런 자연스러운 재현 방식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우선적으로 사진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다. 사진 초기에는 유리판을 이용한 습식 인화방식을 이용했다. 촬영할 때마다 유



〈그림 2〉 엑토플라즘을 만드는 영매. 1932년. 해밀턴(Thomas Glendenning Hamilton).

리판을 약품 처리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다. 1880년대 말에 건식 인화방식이 발명되면서 미리 준비된 사진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축소, 확대가 쉬워졌기 때문에 사진 조작도 손쉬워졌다.

1890년대부터 아주 거칠게 조작된 것처럼 보이는 심령사진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망자의 초상사진이나 잡지사진에서 얼굴만 오려 붙인 것 같은 심령사진들이 제작됐다. 또한 엑토플라즘(ectoplasm)을 촬영한 심령사진이 등장했다(그림 2). 엑토플라즘은 주로 영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촬영됐는데 강한 인공조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명백히 드러나서 사진에 재현된 엑토플라즘은 누가 봐도 신비한 영체가 아니라 흰 천이나 솜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 엑토플라즘 위에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오려붙여 놓고 영혼이 촬영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조작의 흔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심령사진이 노린 것은 역설적으로 심령사진의 진정성이었다. 사진기술의 발달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정교하게 심령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이용해 재미로 심령사진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따라서 심령사진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누가 봐도 조작된 가짜처럼 보이는 심령사진을 내세움으로써 심령사진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8]

8) Harvey, op. cit., 2004, pp. 109-123.

1940년대 이후 심령술(spiritualism)이 쇠퇴하고 이중인화와 같은 사진기술에 대한 지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됐으며 사진조작의 증거들이 계속 폭로됨에 따라 사진관이나 심령술의식에서 촬영되는 심령사진은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심령사진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제작되고 있다. 오늘날 심령사진은 사진관이나 영매가 주도하는 심령술의식에서 전문 사진가들에 의해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나 집, 관광지와 같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촬영된다. 폴라로이드와 같은 일회용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는 사진의 촬영과 제작을 일상적 활동으로 만들었는데 심령사진도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제작되는 사진이 된 것이다. 이런 심령사진들은 이중인화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플래시와 같은 인공조명의 사용으로 생긴 빛의 반사, 느린 셔터 스피드에 의한 형체붕괴(blur), 형상 착시 등에 기초한 것으로 역시 사진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늘날 유통되는 심령사진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종교집회나 영적 체험현장에서 촬영되는 사진이다. 예수나 성모마리아, 혹은 천사의 형상이 촬영되거나 성직자의 머리 위에 후광이 촬영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배이사이드 성모발현(Bayside apparitions)'이다. 1968년 미국 뉴욕의 베로니카 루켄(V. Lueken)이 성모마리아의 발현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이 현상은 1970년부터 매주 토요일 밤에 신봉자들이 모이는 대중집회로 발전했다. 이 집회에서 신봉자들은 성모 발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다. 그들은 특히 폴라로이드와 같은 즉석인화 사진기를 이용해 집회기간 내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촬영에 열중했다. 공중에 떠 있는 빛 덩어리나 움직이는 빛의 흔적들이 성모발현의 모습으로 이해됐다.[9]

9) Wojcik, D. "Spirits, Apparitions, and Traditions of Supernatural Photography", *Visual Resources*, 25(1), 2009, pp. 109-136.

둘째, 일상생활 중 촬영된 사진에 심령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형상이 재현된 경우이다. 촬영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나 물체, 혹은 흐릿한 형상이나 동그란 빛 덩어리처럼 특정할 수 없는 형상이 사진에 나타난 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진은 영혼을 기록하는 "악마의 엔진(devil's engine)"으로 가족이나 친구의 주변에 나타난 영혼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현 상황이나 안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0]

셋째, 흉가, 공동묘지 등 영혼이나 귀신이 머물고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다.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카메라로 무장을 하고 귀신이나 영혼을 촬영하고자 한다.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흐릿한 형상이나 빛 덩어리나 안개 같은 형상들이 촬영된 사진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으며 그 사진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귀신이나 영혼을 촬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촬영된 심령사진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애도와 추모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유가족들은 심령사진 제작으로 유명한 사진관을 찾아가거나 영매가 주도하는 심령의식에 참가해 죽은 가족과 소통하고 그의 영혼이 촬영된 사진을 얻고자 했다. 그렇기에 고인의 사진을 이용한 이중인화 기술이 폭넓게 사용됐다. 반면 오늘날 유통되는 심령사진들은 애도나 추모와는 거리가 멀다. 익명의 유령을 기록함으로써 사후세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사진들은 빛의 산란이나 착시와 같은 기술에 의존한다.

---

10) Wright, Ch. ""A Devil's Engine": Photography and Spirits in the Western Solomon Islands", *Visual Anthropology*, 21, 2008, pp. 364-380.

3. 미신과 과학 사이의 심령사진

1) 종교의 약화와 과학의 발달

심령사진의 등장은 근대적 심령술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미국은 근대적 심령술이 처음 등장한 곳이자 가장 융성했던 곳이다. 1848년 뉴욕 주의 작은 마을인 하이즈빌(Hydesville)에 살던 존 폭스(Fox)의 어린 두 딸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를 나눈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근대적 심령술은, 5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곧 영국에 상륙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유럽 전역에 퍼졌다.[11]

망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는 의식은 오랜 옛날부터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실행돼 오던 것이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심령술은 나름대로의 체계와 이론을 갖추고서 일종의 종교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에 산업화와 개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유입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심과 교회의 구속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률에 의해 고통 받는 대중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심령술이 영적 구원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시작한 것이다.

심령술은 교회나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과 영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

11) Bann, J. "Ghostly Hands and Ghostly Agency: The Changing Figure of the Nineteenth-Century Specter", *Victorian Studies (Project Muse),* 51(4), 2009, pp. 663-686.; Natale, S. "Spiritualism exposed: Scepticism, credulity and spectatorship in end-of-the-century America",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9(2), 2010, pp. 131-144.

교회에서 벗어나 여성이나 소수인종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개혁에 대한 대중의 요구까지 반영했다[12]. 교회와 같은 기구나 조직체는 없었지만 미국의 800여개 도시에서 100개가 넘는 심령술 간행물들을 중심으로 순회 심령술사들의 활동이 활발히 조직됐다.[13]

당시의 심령술은 단지 영매가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시도하는 모임, 즉 '세앙스(séance)'를 갖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철학, 신학, 심리학, 생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이론들을 통해 심령현상을 설명하고 책과 잡지들을 발간하는 등 체계적 운동의 형태를 띠었다. 스웨덴의 신학자인 스베덴보리(E. Swedenborg)에서부터 다윈과 함께 진화론 연구를 한 영국의 생물학자 월리스(A. R. Wallace), 그리고 추리소설로 유명한 코난 도일(C. Doyle)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지식인들도 심령술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심령술 신봉자들은 자연과학에 기대어 심령현상을 설명, 이해하고자 했다. 19세기 자연과학의 발전은 심령현상을 착각이나 사기로 치부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심령세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관찰가능하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19세기에 발명되고 개량되기 시작한 다양한 과학적 측정 도구들과 기계장치들이 영혼이 존재하는 초자연적 세계를 발견, 관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1838년 영국에서 전신(telegraphy)이 상용화되고 1848년 미국에서 모르스부호를 이용한 전신이 실용화되면서 먼 거리에서도 전기를 이용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12) Braude, A. *Radical Spirits: Spiritualism and Women's Rights in Nineteenth - Century America*, 2nd Ed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p. 82-116.

13) Nartonis, D. K. "The Rise of 19th-Century American Spiritualism 1854 -1873",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2), 2010, pp. 361-373.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이용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신의 성공을 심령술사들은 인간 사이의 텔레파시도 가능하다는 것의 반증처럼 이해했다. 1839년 사진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됐고 1876년에 전화가 발명됐으며 1877년에는 축음기가 발명됐다. 1887년에는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1894년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발명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촬영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놓치거나 잘못 지각한 것들을 실수 없이 기록, 재현할 수 있었다. 인간의 감각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기계는 그런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됐다. 게다가 이 기술들은 전기, 전파와 같이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 실체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상적인 인간의 감각 세계를 벗어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심령술 신봉자들은 이 기술들이 인간의 일상적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14]

이 기술들 중 특히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진과 심령술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었다. 사진이 암실의 붉은색 전등 밑에서 인화되는 것처럼 '세앙스'도 붉은 색 전등이 켜진 어두운 방에서 진행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붉은 빛은 심령의 물질화를 유도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15] 붉은색 전등이 켜진 암실에서 사진판 위로 형상이 물질화돼 나타나는 것을 보

14) Sconce, J. *Haunted Media: Electronic Presence from Telegraphy to Televisio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pp. 20-25.

15) Bolton, G. *Ghosts in Solid Form: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ertain Little-Known Phenomena (Materialisations)*. London: W. Rider & Son, 1914, pp. 6-7.

는 것은 그 자체로 심령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게다가 사진의 기계적 객관성은 심령현상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당시의 지배적인 자연과학의 생각에 따르면, 진정한 객관성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가운데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사진은 이런 기계적 객관성을 충족시키는 기술로 이해됐다. 186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심령술 연구의 타당성을 옹호했던 생물학자 월리스는 사진의 기계적 객관성을 이용해 심령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사진은 주관적 인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사진은 영매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적 활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록,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윌리스는 심령사진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령사진은 너무나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령사진을 이용한 사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의 조작 방법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잘 감시되고 통제된 사진은 심령세계의 객관적 실체를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6]

윌리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령술 지지자들은 심령사진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 채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에 심령현상이 기록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심령사진의 진실성을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촬영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사진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며 그런 현상의 원인은 영매의 영적인 힘

16) Mitchell, B. D. "Capturing the will: Imposture, delusion, and exposure in Alfred Russel Wallace's defence of spirit photograph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46, 2014, pp. 15-24.

('fluid')일 수밖에 없었다.[17]

엑스레이 사진, 전기나 자기장을 기록한 사진 등은 사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과학이 자연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통해 발견하는 작업이라면 심령술은 보이지 않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작업이며 사진은 바로 영적 진리를 찾는 심령술의 작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로 이해됐다. 1918년 '초자연적 사진 연구회(Society for the Study of Supernatural Pictures)'가 설립됐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존재를 촬영한 심령사진의 진실성을 옹호하는 책들이 출판했다.[18] 이들은 다양한 사례와 실험을 열거하면서 영혼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령사진은 철저히 과학적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접근된 것이다.

그런데 심령술 지지자들은 과학적 방법에 의존해 심령세계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과학의 물질주의적 편향성에 맞서고자 했다. 19세기의 자연과학은 기독교적 세계의 근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진화론의 등장, 의학과 생물학, 심리학의 발전 등, 자연과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신, 영혼, 사후세계 등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들과 증거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적 존재를 믿는 심령술은 이런 자연과학의 경향에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과학이 다양한 기술과 기계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하듯이 심령술 지지자들은 사진과 같은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 심령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17) *Ibid.* p. 395.

1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Doyle, A. C. *The Case for Spirit Photography.* London: Hutchinson, 1922.; Warrick, F.W. *Experiments in Psychics. Practical Studies in Direct Writing, Supernormal Photography and Other Phenomena, Mainly With Mrs. Ada Emma Deane.* London, Rider & Co., 1939.

자연과학의 물질주의적 경향에 맞서려 했다.

2) 사진에 대한 과학적 판타지

사진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사진이 마치 외부의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과학적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설가 발자크(Balzac)는 인간의 몸은 겹겹이 쌓인 아주 얇은 껍질들로 구성돼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맨 위의 껍질이 분리돼 사진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했다.[19]

사진은 이처럼 초자연적 현상의 결과물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과학 분야에서 관찰과 기록을 위해 사용되는 객관적 도구였다. 사진이 객관적 기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진이 대상으로부터 발산된 빛을 기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바르트[20]가 잘 지적했듯이 사진의 핵심은 바로 사진에 촬영된 "그것은 있었다(ça a été)"라는 사실에 있다.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한, 아무도 사진에 재현된 대상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사진이 그림과 같은 영상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심령술의 지지자들은 바로 사진의 이 특성을 근거로 심령사진에 재현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적인 존재를 그린 그림은 아무리 구체적 목격담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 해도 화가의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지만 심령사진은 상상력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어떤 형상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이란 것이다.

심령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잘 통제된 상

---

19) Nadar, F. *Quand j'étais Photographe.* Paris: Flammarion, 1900, p. 6.

20) Barthes, R. *La chambre claire*, Paris: Editions du Seuil, 1980, pp.119-128.

황에서 제작된 심령사진의 진실성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심령사진 안에 재현된 '엑스트라' 형상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코츠[21]는 그것이 영매의 영적인 힘을 빌려 영혼이 사진에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도쿄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후쿠라이[22]는 영매가 염력을 이용해 사진에 흔적을 남기는 염사(念寫)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형상을 죽은 자의 영혼으로 보든, 영매의 초자연적 능력의 발현으로 보든, 심령술 지지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물질적 육체와는 구분되는 정신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엑스트라' 형상이 잡지에 인쇄 출판된 사진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그것은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잡지의 영상이 영매의 도움을 얻어 사진에 투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23]

정신적 힘에 의해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이다. 영상을 보거나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빛이나 시각과 관련된 물리학, 광학, 화학, 생리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사진과 관련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논의는 옵토그래피(optography)에 대한 것이다. 옵토그래피는 눈의 망막에 맺힌 영상을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에 의해 얻어진 영상이 옵토그램(optogram)이다. 따라서 옵토그램은 눈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

21) Coates, J. *Photographing the Invisible: Practical Studies in Spirit Photography, Spirit Portraiture, and other rare but allied phenomena.* London: L. H. Fowler, 1911, pp. 1-15.

22) Takasuna, M. "The Fukurai affair: parapychology and the history of psychology in Japan",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5(2), 2012, pp. 149-164.

23) Warrick, op. cit., p. 6.

19세기 초반 안과가 전문 의학으로 독립하고 1851년 독일의 헬름홀츠(H. von Helmholtz)가 검안경을 발명하면서 눈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다. 망막에 남는 영상을 사진과 연결해 최초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스코즈비(W. Scorseby)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54년 한 논문에서 눈에 들어온 빛은 마치 사진처럼 망막에 기록돼 장시간 머문다고 주장했다.[24] 당시에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본 것이 망막에 마치 사진처럼 기록돼 남는다는 믿음이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있었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졌으며 경찰에서는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살자의 눈을 촬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1876년 독일에서는 볼(F. Boll)이 망막에 빛에 반응하는 색소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퀴네(W. Kühne)는 망막에 남겨진 영상을 추출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개구리, 토끼와 같은 동물의 망막에서 그들이 죽기 직전에 본 것으로 보이는 풍경을 영상으로 추출해 내는데 성공한 퀴네는 인간의 망막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사형수의 눈을 해부해 검사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25]

망막에 영상이 기록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기록된 영상을 사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챗우드[26]는 망막에 맺힌 영상이 일정한 자극을 받으면 형광이나 인광처럼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사진판을 바라보면 사진판 위에 망막의 영상이 옮겨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실험을 통해 그런 사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뇌의 활동이 망막을 자극해서 일정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진판에 투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

24) Jay, op. cit.
25) Ogbourne, D. *Encyclopedia of Optography, The Shutter of Death.* Muswell Press, 2008, pp. 20-35.
26) Chatwood, A. B. *The New Photography*. London: Downey & Co, 1856, pp. 93-96.

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진 기술과 관련된 논의들은 당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물리적, 생리적 현상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이 대중의 미신적 믿음들과 만나면서 일종의 과학적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4. 현대의 심령사진: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 심령사진은 대개 무섭고 기이한 현상으로 간주돼 주로 대중매체에 의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락거리의 하나로 접근된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에서 납량특집 프로그램이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령사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일반인들이 심령사진을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기회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령사진에 대한 정보와 논의는 대개 일본의 것을 가져온 것이다. 일본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귀신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영적 존재에 대한 토속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심령술, 심령현상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일본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심령술도 함께 받아들였다. '세앙스'가 대중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위자 보드(ouija board)를 일본화한 '코쿠리상' 놀이(한국에는 '분신사바'라는 이름으로 수입됐다)가 유행했다. 또한 최면술(mesmerism)이나 염력 같은 초자연적 정신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았다. 염사를 연구한 후쿠라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령사진에 대한 독창적 논의도 발전했다.[27]

---

27) Takasuna, M. "The Fukurai affair: parapsychology and the history of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빠른 전후 복구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카메라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사진 촬영이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일상생활을 촬영한 많은 사진들이 제작되면서 심령사진이 발견되는 횟수도 증가했다. 일본인들의 경우,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같은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신앙에 기대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심령사진의 유행은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일본인들의 민간신앙적 관심이 사진을 통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심령사진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것이다. 여러 잡지에서 독자들의 심령사진을 소개하고 전문가(사진가, 영매 등)의 조언을 게재하는 부분을 고정란으로 편집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심령사진이나 동영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작 방송한다. 일본의 심령사진이 가진 특징은 대부분 일상생활 중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집, 동네, 학교, 관광지, 묘지 등에서 촬영한 기념사진들 중에서 심령사진이 발견되는 것이다. 챌펀[28]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심령사진의 형상이 알지 못하는 것일 경우 사진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길한 것으로 보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진 속 형상이 가족의 모습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여기며 잘 간직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심령사진이 일본처럼 흔히 발견되지도 않고 꾸준한 화제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기독교의 세력이 매우 크고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려 하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령사진은 죽음이나 영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

psychology in Japan",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5(2), 2012, pp. 149-164.

28) Chalfen, R. "Shinrei Shashin: Photographs of Ghosts in Japanese Snapshots", 1(1), 2008, pp. 51-72.

수단이기보다는 대부분 대중매체에 의해 오락적으로 소비되는 일회성 볼거리에 머문다.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심령사진으로서는 드물게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속칭 '제주도 심령사진'이 대중매체에 의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에서 심령사진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제주도 심령사진'은 2012년 6월 12일 MBC의 「TV특종 놀라운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그림 3). 이 프로그램은 그전부터 종종 심령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소개하곤 했다. 일상생활의 사진 속에 재현된 이상한 형상을 영상분석전문가와 영매(무당, 퇴마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전의 심령사진들에 나타난 형상들이 정확히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던 것에 비해 제주도의 사진 속 형상은 비교적 식별 가능한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됐다.



〈그림 3〉 제주도 심령사진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당시 27세의 윤재현이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그의 등 뒤로 어떤 인물의 모습이 촬영됐다. 그 곳은 낭떠러지라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진촬영 후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본인은 상을 마친 후 3일 동안 몸이 아파 앓아 누었으며 아버지는 용종이 발견돼 수술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제보자의 부모는 사진을 보기 무서우니 버리라고 했다. 제작

진은 영상전문가(ㅈ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에게 사진 분석을 의뢰해서 합성이나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작진은 촬영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그곳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진을 본 사람들(경찰관 포함)이 사진 속 형상이 사람 같다고 평가했기에 실제로 사람이 촬영됐을 경우를 고려해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사진 복원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형상을 좀 더 또렷이 복원했다. "이런 기괴한 사진은 처음이다"라고 말한 복원전문가는 형상을 40-50대 남자의 모습으로 추정했다. 복원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진은 관광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사했으나 형상과 유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았으나 그는 본인임을 부인했다. 그러던 중 20년 전 성산일출봉에서 50대 일본관광객이 추락사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일본에 있는 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해 사진을 보여줬다. 유가족은 사진 속 형상이 고인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자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제작진은 유가족이 보내 온 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모습이 비슷하긴 하다고 평가했다. 이 방송은 "귀신이라 믿으면 귀신이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찍혔을 것이다"라는 제보자의 말로 마무리된다. 방송 후, 제작진이 사망자의 사진이라고 소개했던 사진이 사실은 현재 생존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제작진이 사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촬영한 사진에서 뜻밖에 발견되는 이상한 형상, 사진 촬영 후 생기는 안 좋은 일들, 조작이나 합성의 흔적이 없다는 영상전문가의 의견, 촬영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망사건, 사망사건 당사자와 사진 속 형상의 형태적 유사성, 심령사진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의 보류, 정보의 조작 논란 등, 이 사건 안에서는 심령사진의 제작과 확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영매와 같은 심령전문가의 의견

이 빠져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사진에 찍힌 것은 존재했던 것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영혼이라는 불가지의 존재가 심령사진이란 형태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19세기나 지금이나 심령사진으로 여겨지는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진이 조작이나 합성의 결과물인가 하는 것이다. 심령사진이 사진관에서 제작되던 19세기에는 사진 제작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조작의 가능성을 없애려 했다면, 다양한 사진조작 기술들이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사진이 디지털화돼 있는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려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도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사진은 알 수 없는 현상의 결과물로 분류된다. 그리고 탐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통해 사진에 나타난 이상한 형상의 정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사진 속 형상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히 식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벽에 부딪치거나 가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심령전문가의 의견이 청취되기는 하지만 심령의 실체가 확인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 역시 확인 불가능한 가능성의 상태로만 머문다. 결국 심령술 지지자들의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심령사진을 다루는 모든 텍스트는 확정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문만을 제기하는 열린 결말의 형태를 갖는다. 제주도 심령사진의 제보자 윤재현의 말대로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19세기와 같은 심령사진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오늘날 사라졌지만 심령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제작되고 있으며 여전히 사진은 심령세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령사진이 등장할 때마다 두 영역의 전문가들이 사진 감정에 동원된다. 하나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영상분석 전문

가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힘을 이용해 심령의 실체를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심령현상 전문가(영매, 무당, 퇴마사 등)이다. 미신으로 간주되는 무속신앙과 합리적 기술로 무장한 과학이 심령사진의 정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나 경험담과는 달리 심령사진은 항상 과학적 분석이나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사진 자체가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객관적 기록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에 기록된 이상한 형상은 우선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 사진이 재현하는 대상이 결국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아직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심령세계이기 때문에 심령사진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만 머물 수밖에 없다. 21세기가 됐지만 심령사진은 여전히 자연과 초자연, 과학과 미신 사이에서 두 영역 모두에 발을 디딘 채 존재하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해

19세기에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기록, 측정,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이 속속 발명, 발견되면서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믿음은 커졌다. 영매나 퇴마사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을 마침내 과학적 도구를 이용해 일반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것이다. 기독교가 약화되고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크게 확산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오랜 의문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에 기대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은 바로 그 믿음에 가장 잘 부응한 매체였다. 대상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재현력, 존재하는 것만을 기록하는 사실성,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지는 영상의 객관성 등은 사진을 근대의 이성적 사고가 요구하는 과학적 관찰도구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런 사진이 영혼을 재현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가장 큰 미지의 세계로 제시된 사후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길을 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이면서 정밀한 과학기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심령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심령사진은 영혼, 사후세계와 같이 논리나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다루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사진의 기술적 특성이 심령사진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심령사진의 등장 과정에서 종교적, 과학적 환경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에 현대 한국사회에서 심령사진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의 힘이 약화되자 인간은 새로운 앎의 수단인 과학을 이용해 사후세계를 알고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과학적 기술 발전의 산물인 사진은 가시적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쉽고 명백하게 사후세계에 접근하는 문을 여는 수단으로 이해됐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영매, 퇴마사, 무당 등의 확신에 찬 목격담과 각종 측정기구와 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과학적 담론 사이에서 심령사진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명확한 기록수단인 사진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화답하면서 계속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Bann, J. “Ghostly Hands and Ghostly Agency: The Changing Figure of the Nineteenth-Century Specter”, *Victorian Studies* (Project Muse), 51(4), 2009, pp. 663-686.

Chalfen, R. “Shinrei Shashin: Photographs of Ghosts in Japanese Snapshots”, *Photography & Culture*, 1(1), 2008, pp. 51-72.

Harvey, J. “The Photographic Medium: Representation, Reconstitution, Consciousness, and Collaboration in Early-Twentieth-Century Spiritualism”, *Technoetic Arts: A Journal of Speculative Research*, 2(2), 2004, pp. 109-123.

Mitchell, B. D. “Capturing the will: Imposture, delusion, and exposure in Alfred Russel Wallace’s defence of spirit photograph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46, 2014, pp. 15-24.

Nartonis, D. K. “The Rise of 19th-Century American Spiritualism 1854-1873”,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2), 2010, pp. 361-373.

Natale, S. “Spiritualism exposed: Scepticism, credulity and spectatorship in end-of-the-century America”,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9(2), 2010, pp. 131-144.

Takasuna, M. “The Fukurai affair: parapsychology and the history of psychology in Japan”,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5(2), 2012, pp. 149-164.

Wojcik, D. “Spirits, Apparitions, and Traditions of Supernatural Photography”, *Visual Resources*, 25(1), 2009, pp. 109-136.

Wright, Ch. ““A Devil’s Engine”: Photography and Spirits in the Western Solomon Islands”, *Visual Anthropology*, 21, 2008, pp. 364-380.

2. 단행본

Barthes, R. *La chambre claire*, Paris: Editions du Seuil, 1980.

Bolton, G. *Ghosts in Solid Form: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ertain*

Little-Known Phenomena (Materialisations). London: W. Rider & Son, 1914.

Braude, A. *Radical Spirits: Spiritualism and Women's Right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2nd Ed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Chatwood, A. B. *The New Photography*. London: Downey & Co, 1856.

Coates, J. *Photographing the Invisible: Practical Studies in Spirit Photography, Spirit Portraiture, and other rare but allied phenomena*. London: L. H. Fowler, 1911.

Doyle, A. C. *The Case for Spirit Photography*. London: Hutchinson, 1922.

Fukurai, T. *Toshi to nensha [Clairvoyance and Thoughtography]*. Tokyo: Hobunkan, 1913.

Hannavy, J. *Encyclopedia of Nineteenth-Century Photography*. New York: Routledge, 2008.

Harvey, J. *Photography and Spirit*. London: Reaktion Books. 2007.

Jay, B. *Cyanide & Spirits/ An Inside-Out View of Early Photography*, Munich: Nazraeli Press, 1991.

Mumler, W. H. *The Personal Experiences of William H. Mumler in Spirit-Photography*. Boston: Colby and Rich, 1875.

Nadar, F. *Quand j' étais Photographe*. Paris: Flammarion, 1900.

Ogbourne, D. *Encyclopedia of Optography, The Shutter of Death*. Muswell Press, 2008.

Schmitt, J. C. *Ghosts in the Middle Ages: The Living and the Dead in Medieval Society*.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Sconce, J. *Haunted Media: Electronic Presence from Telegraphy to Televisio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Sontag, S. *On Photograph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7.

Warrick, F. W. *Experiments in Psychics. Practical Studies in Direct Writing, Supernormal Photography and Other Phenomena, Mainly With Mrs. Ada Emma Deane*. London, Rider & Co., 1939.

[Abstract]

Spirit Photography: Ghosts Seen through the Scientific Eyes

Joo, Hyoung-Il

In this article, I examined how the photographic process has determined the apparitional shapes in spirit photography, in what religious and scientific context the spirit photography has been produced and how the spirit photography is received in South Korea. Spirit photography was connected to the movement of spiritualism and to the superimposition technique. The weaken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science made people seek the assurance of continuity after death in the spiritualism. The superimposition technique produced man-like shapes in spirit photography. The bereaved got relief from the loss of their family member by finding the deceased's face in spirit photography. For the spiritualists, photography was an excellent medium to see the unseen, the afterlife world because it was a objective scientific technical device. In South Korea in which the Christian church is strong and spirit phenomena are considered to be superstitious, the spirit photography is generally exploited for the entertaining purposes.

Key words: spirit photography, spiritualism, thoughtography, optography, superimposition

주형일
소속: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주소: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시지랑스빌 101-1102
전화번호: 010-9812-2264
전자우편: spdm@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2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